

곤도 하루오(近藤春雄)의 미디어 문화정책론의 전개

시라토 켄이치로
(白戸 健一郎)

[요약]

본 연구는 전쟁 전과 후에 걸쳐 문화 평론가로서 활약한 곤도 하루오(近藤春雄)의 사상적 궤적을, 그의 주된 저작물과 평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곤도는 전쟁 전에 독일 문화정책의 소개자, 문화 정책 논자로서 그리고 전후는 미디어 연구자로서 다수의 저작물을 남겼다. 곤도는 전후의 저작 중에서 오오야 소이치(大宅壯一)의 ‘일억 총 백치화(一億総白痴化)’를 패러프레이즈 하여 ‘일억 총 박지화(一億総博知化)’를 주장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떻게 이 “일억 총 박지화(博知化)”가 등장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쟁 중의 문화 정책론은 “어두운 골짜기”의 시기에 있어서의 단순한 문화 통제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문화 격차를 시정하는 어떤 종류의 계몽론으로서 전개하고, 전후의 미디어 연구로 이행 한 것을 지적한다.

1 장. 머리말

전쟁 중의 문화상황은 오랫동안 “어두운 골짜기”의 시대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근년에는 산업보국회(産業報国会)에 의한 문화운동이나 지방에서의 문화운동의 실태를 해명하는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그러한 평가는 변화하고 있다. 아카자와(赤澤, 1995)는 이 시대를 단순한 “어두운 골짜기”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문화운동이나 문화의 민주화가 기도되어, 국민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하나의 작은 계몽기”이었다고 평가한다. 게다가 쓰가네자와와 아리야마((津金沢・有山, 1998)는 “열매 없는 꽃이었을 지도 모르지만, 문화는 독특한 꽃을 피운” 시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문화운동이나 문화실천의 이론적 배경이 된 것이 문화정책론이었다.

또한 아카자와(赤澤, 1995)는 종전 직후는 “계몽주의의 시대”이며 점차 그것이 후퇴했다고 말했는데, 미디어론의 문맥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 사토(佐藤, 2008)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국민 교화 패러다임’으로 보고, “계몽주의의 시대”를 전쟁 전과 후에 연속한 것으로서 논하고 있다. 1925년의 라디오 방송 개시를 기점으로 하는 이 패러다임은 이미 왕년의 빛을 잃어 버렸지만, 1985년의 방송대학 개학에서 그 결실을 맺는다. 또, 이 과정은 교육의 기회 균등에 의한 ‘일억 총 중류(一億総中流)’ 사회에의 도정(道程)이기도 했다. 여기서 텔레비전은 ‘일억 총 박지화(博知化)’의 미디어, 즉 계몽의 미디어로서 구상되어 있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만 다루어져 온 곤도 하루오를 주제화 한다. 곤도는 전후 오오야 소이치의 ‘일억 총 백치화(白痴化)’를 패러프레이즈 해서 텔레비전을 일찍 ‘일억 총 박지화(博知化)’의 미디어로서 주장한 인물이다. 곤도는 전쟁 전에 문화 정책

논자로서 활약했지만, 문화정책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재로서의 ‘국민문화’를 구상했다. ‘국민문화’는 국민 전체에 문화나 지식을 전달한다는 뜻이며 “국민교화=일억총박지화”이었다. 곤도는 전전(戰前)과 전후(戰後)를 일관해서 ‘일억 총 박지화’를 지향하고, 전후에 미디어 연구자로서 활약했다. 종래의 미디어 연구에서는 전후에 미국에서 수입된 학문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근년에는 전전의 프로파간다 연구와의 연속성이 지적되어 있는데, 곤도의 사상과 행동을 밝히는 것으로 인해 문화 정책론을 기원으로 한 미디어 연구의 궤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중의 문화정책은 동시대 독일의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행된 것이었다. 그래서 전시하(戰時下)의 문화 상황에 관한 연구의 축적에 비교해서 전시하의 문화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된, 어떠한 문화를 구상하는가를 논한 문화 정책론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문화정책’ 관련 출판물을 망라적으로 조사한 나가시마(永島, 2003)나 사회교육이란 관점에서 논한 『일본 근대 교육 100년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는 전전의 문화사 연구에서 취급되지 않았던 문화정책론 연구이기도 하다. 또 독일 문화의 수입이란 점에서도 독일 관련 책을 7권이나 집필하고 정력적으로 활동한 곤도 하루오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편적으로만 언급된 정도이었으며 일관되게 연구된 것은 거의 없었다. 전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토(2008)가 ‘일억 총 박지화’를 주장한 인물로서 중시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전전의 활동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한편으로, 전쟁 중의 문화정책론이나 곤도 하루오가 거의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문화정책론이 문화통제론(文化統制論)이었으며, 나치스의 정책을 모방해서 실시된 것이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곤도는 ‘만몽개척 청소년 의용군(滿蒙開拓青少年義勇軍)’을 찬미한 국책 문화 단체인 ‘대륙개척 문예 간담회(大陸文芸懇話會)’의 발기인기도 하고, 국책에 상당히 가까운 언론활동을 행했다. 마츠시타 케이이치(松下圭一)는 전후(戰後)에 문화행정론(文化行政論)을 전개하는 데에 전전(戰前)의 전체주의 형(型)의 ‘문화통제’를 상기시키는 ‘문화정책’이란 말은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곤도를 ‘일억 총 박지화(博知化)’를 제창한 미디어 연구자로 본다면 전전과 전후를 일관성 있게 국민교화(國民敎化) 패러다임 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전의 문화정책론도 국민교화 패러다임의 일환이었으며, 단순한 “어두운 골짜기”의 통제론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곤도의 주된 저작과 평론을 검토하면서 곤도 하루오의 사상적 궤적을 밝히고자 한다. 이 작업에 의해 전전(戰前)의 독일 문화정책과 일본의 문화정책의 연속성, 전쟁 중의 문화정책의 기능, 미디어론의 기원 등의 과제를 밝히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1 장. 독일 문화정책 연구의 범위

1절. 총력전 체제와 문화정책

‘문화정책’이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사용하기 시작된 것은 언제인가? 국립국회도서관 서지 검색으로 ‘문화정책’이란 타이틀과 출판 연도를 1945년 이전으로 설정하여 검색하면 모두 26권이 검색된다. 중복한 것을 제외하고 열거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출판문의 경향에서 다음의 네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타이쇼기(大正期)에 논의하기 시작된 ‘문화정책’이란 사회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점. 두 번째로, 많지는 않았지만, 대외 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외무성 관계자에 의해 논의되었다는 점. 세 번째로, 1940년(쇼와 15년)을 전후해서 많이 논의되었으며, 반 이상이 이 시기에 출판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에 네 번째로, 주로 논의된 시기가 타이쇼기와 쇼와 15년(1940년)을 앞뒤로 하는 시기이었다는 점이다.

다만, 당연하지만 이것은 의론이며 실천이 아니다. 문화적 사상(事象)을 행정기관의 정책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이러한 문화정책이 논의되기 이전에도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문화정책 ‘논’으로 볼 때, 거기에는 특정한 문맥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논의가 많았던 타이쇼기에는 어떻게 논의되었는가? “문화정책”과 『사회문제 개설(概説)』의 저자 미즈노 가즈이치(水野和一)는 ‘문화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쇼의 ‘문화정책’이란 “국민이 평등한 문화 공유를 목적으로 하여 사회 일반의 지식, 취미 및 사교성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방책”이다. 구체적으로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미술관 등의 시설을 정비하고 그것을 개방하는 것이었다. 미즈노가 “문화정책”을 집필한 『사회사업 연구소 강의록(社会事業研究所講義録)』(藤音得忍:후지네 토꾸넌 편)에서는 다른 저자가 ‘노동문제 일반’이나 ‘공장 위원 제도’ 등을 논하고 있다. 미즈노 자신도 그의 저작『사회문제 개설』에서 도시 문제나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것으로부터 문화정책을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사회교육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변화도 1911년에는 사회 교육과의 전신이 되는 통속 교육 조사 위원회(通俗教育調査委員會)가 설치되어, 1924년에는 문부성에 ‘사회 교육과’를 설치하다가 1929년에 ‘사회 교육국’으로 확충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회교육 행정기관이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미즈노가 구상한 ‘문화정책’은 거기에 포함되어 간다.

그 다음에 문화정책이 크게 거론되는 시기가 1940년 전후이다. 이 시기는 국가가 ‘문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한 시기이었다. 요미우리 신문 데이터 베이스를 참조하면 ‘문화통제’ ‘문화정책’ ‘문화행정’ ‘국민문화’라고 하는 말이 확실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 정책	문화 운동	문화 행정	문화 통제	국민 문화	문화
1874~1912	1	1	25	0	0	1580
1912~1926	9	31	26	0	3	6113
1926~1936	6	23	62	18	6	2484
1936~1945	66	55	75	29	76	4172

그러므로 이 시기의 문화정책은 타이쇼기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 했다. 실제로 전쟁 후에 사회교육학회 회장을 맡은 미야하라 세이이치(宮原誠一)는 1943년의 『문화정책 논고』에서 “현대의 의의에 있어서 문화정책이라는 개념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의 사상전(思想戰), 선전전(宣戰戰)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졌고” 전쟁은 “무력전과 경제전(經濟戰)과 사상전을 일체화 시켜 (중략) 국가총력전이 되었다”라고 하여 총력전에의 관여를 강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문화정책의 국가 총력전적 본의(本義)로부터 말하자면 문화정책이란 우선 첫째로 국민의 정신과 생활을 국가의 목적을 위해 동원하여 훈련하는 것

에 관한 정책이다”라고 정의한다. 사회 교육사의 문맥에 있어서도 ‘국가 총력전체제’가 사회 교육론을 하여금 “국민형성론으로서 문화 정책론이나 국민 문화론을 결실시켰다”고 여겨져 있다. 또한, 미야사가 고우사꾸(宮坂広作)는 “쇼와(昭和) 10년대 후반 익찬(翼賛)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대정익찬회(大政翼賛会) 지도 하에 전개된 ‘국민 문화운동’은 소위 ‘사회교육’ 행정의 계통에서 실시된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의 사회교육 정책의 내실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전쟁 중의 문화 정책론은 사회교육과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총력전 체제 구축과 함께 전개되었으며 국민 문화론을 파생시켜 갔다.

오락 연구자로서 사회교육 기관의 정비에 종사한 곤다 야스노스케(權田保之助)는 이 시기의 문화정책론과 국민문화론의 동향을 논한 “‘국민문화’의 이념의 고양과 전진”(1944)에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문화’가 중대한 그리고 심각한 문제로서 새삼 채택된 것은 (중략) 쇼와 16년 가을”의 것이었으며, 특히 “급격히 진전한 대동아 전쟁 전야의 일”이었다.

곤다가 동시대의 잡지를 조사한 결과, 1942년의 1년간에 문화정책론이나 국민문화론에 관련한 논문의 수는 198개이었다. 전국(戰局)이 진행됨에 따라 잡지의 통폐합이나 용지 배급 제한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시대의 중심 문제가 된 것처럼 되었다”고 말한다. 잡지 『교육』이 1938년에 ‘문화정책’을 특집하고, 또 고노에(近衛) 내각의 브레인으로서 쇼와 연구회(昭和研究会)에 소속하던 미키 키요시(三木清)가 1940년에 ‘문화정책론’을 잡지 중앙공론(中央公論)에 발표한 것로부터 “쇼와 16년 가을”을 강조하는 점에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40년 전후에 문화정책론이 시대의 유행이 된 것은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주제화 하는 곤도 하루오 역시 이 시대에 『문화정책론』(1940)을 발표했다.

2) 곤도 하루오와 독일 문화정책

우선 곤도 하루오의 약력을 보자. 『현대인의 사상과 행동』(1960)에 기재된 그의 경력은 아래와 같다. “1908년 도쿄(東京)에서 태어나, 도쿄제국대학교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외무성에 들어가 국제문화 사업 등에 전임, 구미 각국을 역방하여 홍보, 선전, 문화 관계를 조사 연구했다. 1955년 내각 영화심의회 위원. 1959년 이탈리아, 미라노에서의 국제 매스커뮤니케이션 학회에 참석. 현재 재단법인 신생활 운동 협회 홍보부장, 일본대학교 강사, 동 대학교 예술학부 커뮤니케이션 연구실 주임. 일본 신문학회. 국제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협회(본부, 파리) 회원. 저작물로서 “예능 문화 독본” “문화정책론” “방송문화” “신문과 방송” 그리고 시집 “相思鳥”, 창작집으로서 “여성의 예술”, 희곡집으로 “대륙항로(大陸航路)” 등이 있다”.

아주 상세한 약력이지만 부가해야 할 정보가 몇 가지 있다. 아버지는 정우회(政友會) 의원이며, 백부는 만주철도(滿州鐵道) 부총재를 맡은 핫타 요시아키(八田嘉明)가 있다. 후쿠시마 테추로우(福島鉄郎)·오오구보 히사오(大久保久雄) 공 편 『전시하의 언론』(日外アソシエーツ, 1982)에서의 신분은 ‘문화평론가’로 되어 있다. 외무성 근무 시에는 주로 독일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거기에서의 경험과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나치스의 문화통제』(1938), 『나치스의 청년운동』(1938), 아돌프 히틀러/곤도 편.역 『청년에게 고한다』(1940), 『나치스의 후생문화(厚生文化)』(1942),

『독일 건민(健民) 운동』(1943), 『나치즘과 청년』(1943)을 출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나치스 독일 문화정책의 정력적인 소개 자로서의 얼굴은 당연히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전전의 나치스 문화정책으로부터 전후의 메스커뮤니케이션 연구로 어떻게 이행한 것인가가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된다. 또 곤도는 도쿄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문학 활동을 했으며 잡지 『椎の木(모밀жат밤나무)』에 기고한 것을 편집한 것이 『相思鳥』(1935)이다. 1939년에는 기시다 쿠니오(岸田國士), 후쿠다 키요토(福田清人) 등과 함께 대륙개척 문예 간담회(大陸開拓文芸懇談会)를 결성했다. 게다가 일본 문학 보국 회(日本文学報国会)의 전신인 일본 문예 중앙회(日本文芸中央会) 서기장, 일본 문학 보국 회 수필 평론 부 참사 등을 역임했다. 이런 식으로 전전에는 문화 평론가, 문학자로서 주로 활동했다.

본 절에서는 곤도 하루오의 외무성 근무시대와 그의 사상적 원점이 된 독일 문화정책에 대해 서술한다.

곤도는 1934년에 도쿄제국대학교를 졸업 후, 동년 9월에 외무성 문화사업부에 촉탁 직으로서 근무하게 된다. 대학교 재학 중에는 로우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 밑에서 문화정책을 공부하고, 외무성 근무하게 된 후에도 로우야마의 세미나에 참석한 것 같았다. 1935년 9월, 외무성의 외곽단체로서 국제 문화 진흥회(國際文化振興会), 국제 학우회(國際學友会), 국제 영화협회(國際映画協會)가 발족하면 곤도는 국제영화협회 주사로 취임했다. 발족시의 임원에는 화장에 자작(子爵) 소가 수케쿠니(曾我裕邦)를 비롯해 평의원으로서 아시다 히토시(芦田均), 야마다 고우사꾸(山田耕筰), 호리구치 다이카꾸(堀口大学), 기시다 쿠니오, 후지타 추구하루(藤田嗣治) 등 쟁쟁한 문화인이 모였다.

국제영화협회에서의 주요 사업으로서 1936년에 스즈키 주키치(鈴木重吉)와 후지타 추구하루의 감독 영화 『현대 일본』 전10권을 완성시킨 것과 일본 최초의 국제영화 『새로운 땅』(독일 판은 아널드 펑크 감독, 일 본판은 이타미 만사꾸)을 완성시킨 것의 두 가지를 거둘 수 있다. 『현대 일본』에는 외교관이며 시인이기도 하고 곤도의 시집 『相思鳥』의 서문을 쓴 야나기사와 켄(柳沢健)이 발안과 실행 작업에 참여했다. 곤도는『새로운 땅』의 사무나 절충으로 종사하고, 이 때 아널드 펑크감독과 친교를 맺었다. 이 영화작품에는 하라 세츠코(原節子)나 하야카와 셋슈(早川雪州), 고수기 이사무(小林勇) 등이 출연하고, 음악 담당자로 야마다 고우사꾸가 참가했다. 영화 스태프나 배우들의 호화로움으로 기대가 높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평가는 얻지 못했다.

예를 들어 1937년(쇼와 12년) 4월 5일의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원래 외무성에서 국제영화협회에 보조하는 금액은 전체로 5만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일본”만으로 3만엔을 배분하여, 게다가 후지타 추구하루가 담당된 부분에 5만 5천엔의 세금을 추가했다. 1936년(쇼와 11년) 10월 31일 마이니치 신문에는 펑크의 영화는 완성까지에 총 60만엔을 투자했다는 기사가 있다. 특히 후지타가 담당한 “현대의 일본”은 거액의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근대적인 일본의 정경(情景)을 많이 촬영했기 때문에 ‘국욕(国辱)’이라는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 야나기사와가 신문에서 반론을 게재했다.

그 후 곤도는 1937년 5월에 미국을 비롯해 유럽을 차례로 방문하고, 1937년 8월 베네치아에서 만국영화회의와 국제교육 영화회의에 출석했다. 그 곳에서 독일의 영화원 총재 오토·레니히와 접촉하여, 11월 3일에 일독 문화영화교환 협정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에 귀국한 후에 문필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협회를 사직했다. 그런데 영화협회는

1938년 재정난을 이유로 국제문화진흥회에 계승되어 국제영화협회는 해체되었다. 국제영화협회는 불과 3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독일과의 친선 관계를 깊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핑크의 영화촬영에 일독 군사협정(日獨軍事協定) 체결 교섭을 위한 프리드리히 핵(Friedrich Hack)이 동행하고, 1936년 11월에 일독방공협정(日獨防共協定)이 체결되어 이후 일·독 관계는 조금씩 강화되어 갔다. 곤도 자신도 국제영화협회 주사 시대에 핑크는 물론, 기록영화 “의지의 승리”나 “올림피아”를 감독한 레니 리펜슈탈, 모던댄스의 창시자인 마리 비그만 등과 친하게 교류했다.

그 당시의 경험을 곤도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국제영화회의 석상에서 참으로 통감한 것은 (중략) 국제문화의 선양이라고 해도 결국은 국내문화가 충실해야 비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략) 적어도 이러한 국제 문화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 조직 계통의 확립이 선행 요건이 되며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내용적 취약성을 피할 수 없다. 처음에는 대외 문화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곤도가 이후 국내 문화정책에 전념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사직한 해에 곤도 하루오는 국제영화협회에서의 조사 연구의 성과를 살려서 『나치스의 청년운동』, 『나치스의 문화통제』를 출판한다. 이 시기에 그의 본격적인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또 일본대학(日本大學) 강사로서 ‘영화 정책론’을 강의하게 된다.

1938년에 출판된 두 권의 독일의 문화정책을 소개하는 책이 그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원점이 되었다. 우선 왜 곤도가 특히나 독일에 주목한 것인가? 그 이유는 『나치스의 문화통제』에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것은 “현재의 독일이 소위 제3제국이란 이름 하에 국가 통일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국가통일’이란 어떠한 의미인가? 그것은 “1민족 1국가”를 성립시켰다는 것과 “계급투쟁의 결정적 극복”을 성취했다는 것의 두 가지를 주장한다. 곤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익을 논하기 전에 사익을 논하지 않은 소위 전체주의는 민족주의에서 출발한 계급 분열의 극복이다. 제3제국의 사회적인 새 형태는 온 국민의 무계급적 일원적 단결에 있다”.

이것을 완성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원수한 것이 ‘문화통제’ 혹은 ‘문화정책’이었다. 이것에 의해 “국민의 감정과 정신 생활에 규칙”을 부여하고 문화정책의 조직이나 시설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문화 자체를 “국가적 규약 하에 통일시킨다”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바꿔 말하자면 문화를 자유주의나 개인주의가 가져오는 폐해로부터 해방하고, 국민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것으로 통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곤도는 나치스의 문화정책중에서도 “歡喜力行(Kraft durch Freude)”단(團)에 의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노동자는 지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고, 단이 경영하는 휴양소 혹은 해수욕장 등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또 종래는 특수 계급에만 개방된 음악회, 오페라, 극장 등도 단의 활동에 의해 모든 노동자에게 해방되었다. (중략) 독일의 문화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전국민의 공유물로 애호되어 조국 문화에 대한 외경(畏敬)은 모든 국민의 두뇌에 각인된다

KdF의 이러한 활동이 여대까지 특정 계급에만 향수(享受)된 문화를 모든 국민에게 개방할 것을 가능하게 했다. 즉, “계급주의적 문화 향수로부터 국민적 문화 향수”를 실행하고 계급분열을 지양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에 『나치스의 청년운동』에서는 히틀러 청년단과 노동 봉사단의 활동을 그 성립 과정이나 조직 구성, 야외훈련시의 기상 시간에서 단기(團旗) 계양, 아침식사의 시간 등의 일과까지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상세한 사업이나 일과에 대한 기술보다 곤도가 어떠한 점에서 청소년 단을 이상적으로 보았는지, 찬미했는지를 주목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단내의 관계성을 이상시(理想視) 한 곤도는 이것을 나중에 자기 자신의 문화정책을 전개하는 데에 모델이 되는 사회상(社會像)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가지 다양한 배제를 통해서 형성된 집단내의 관계성만을 보다가 그것을 안이하게 사회까지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곤도에 대한 하나의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곤도는 어떻게 청소년단을 언급했는가?

(청소년단:필자주) 구성 조직의 본질이 계급 및 교양이라고 라는 차별적 관념을 해소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중략) 단원 상호 간에는 아름다운 우정, 동지애가 있는 뿐이다.

교양=문화(culture)가 차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것을 해소한 것이 청소년단이었다. 게다가 곤도는 “독일의 청년”은 “계급, 신분, 교양”이라고 하는 차별성을 ‘초월’하는 것으로 “민족이란 큰 공동체 의식 아래 집약되어 공익에 준(殉)하는 희생적 정신이 함양된다”고 기술했다.

더욱 이러한 계급적, 신분적, 교양적 분단의 근본이 되어 있는 것은 “노동자 모멸 의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멸 의식을 청산하기 위해 ‘노동봉사’가 청소년단이나 노동봉사단의 특색이 되어 있다. 우선 이러한 모멸 의식은 국민의 도시 집중에 의해 야기된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문화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식인이 몸에 익힌 도시적 문화가 농민이나 노동자에 대한 지적 우위성을 과시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을 노동에 종사시키고 노동 존중의 정신을 기르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꾀해서 향토애를 함양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것으로 “계급, 신분, 교양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혼연히 정신적으로 융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독일이 문제시한 문화나 교양에 의한 분단 상황은 일본에 있어서도 볼 수 있었다. “인텔리겐치아라고 칭하는 지식인”은 노동자를 경멸하고, 그들의 지적 우위를 자부하고 대립 의식을 가지는 경향이 강했다. 극단적인 예로서는 “일단 기회를 얻어 중앙에 유학(遊學)하는 신분이 되면 자기의 학문적 교양을 과시하고 고향의 부모형제의 무교양을 모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 이러한 대립이 존재하는 한 공동체 의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곤도가 본격적인 문필활동을 시작한 것은 중일전쟁 후의 1938년이었으며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이 전개되어 있었다. 이것을 보완하고 총력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대립을 지양하는 “문화의 보편적 향수”, 즉 “국민적 문화 향수”가 그의 주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곤도는 “국민적 문화 향수”가 가능하게 하는 문화를 ‘국민문화’라고도 했다.

본 절에서는 곤도의 독일 문화정책 연구를 소개했는데 다음 장에서는 그가 어떻게 독일 문화정책을 소화하고 그것을 일본에 응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문화정책론을 전개했는지를 고찰한다.

제2장. 국민문화의 꿈 · 새 문화의 창조

1) 곤도 하루오의 『문화정책론』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민정신총동원(國民精神總動員) 운동이 전개된다. 곤도가 독일에서 조사 연구한 문화정책은 여기에 응용되어 1940년에 “문화정책론”을 출판한다.

곤도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지향하는 것은 국민 각자가 “각각을 결합하는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고 국가의 목표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총 친화의 과실을 구체화 하는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개인을 결합하는 정신적 유대”로서 문화를 위치시키고 ‘총 친화 체제’를 실현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목적이 된다. 『문화정책론』에서는 당시의 문화를 비판한다.

우선 곤도는 문화를 향수하는 방식이 계급주의나 자본주의에 지배되어 있다는 것을 비판한다. 당대의 연극, 음악, 문학 등은 상부와 중부, 각기 특정계급에 의해서만 향수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계층의 예술’일 뿐이며 “국민 전층(全層)의 예술”이 아니다. 곤도는 여기에 계급적 문화 격차의 존재를 지적한다.

또, 상업주의적 문화는 “유한계급의 소비적 여잉(餘剩)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극장을 “하나의 사교장”으로 하여, 문화를 “단지 장난감”으로 만들어 버렸다. 문화 창조의 동기 역시 그것을 향수하는 특정 계층의 호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 있다. 즉, 문화가 일련의 소비계급의 독점적 소유물이 되어 모든 계층에 의한 보편적 향수(享受)와는 차단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해석된 문화는 결국 “국민의 사상 생활이나 정신 생활에서의 확고한 근거를 상실하게 하여”, “창조의 예지(叡智)도 고갈하고”, “관능적인 말소신경만을 초조하게 하는” 듯한 것으로 타락한다. 그러므로 “일부 특정 계층의 독점적 향수로부터 모든 국민 층의 공유적 감상으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상업 기업형태의 합리화 하는 데에서 그 조직이 정비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업 기업체에 지배된 문화는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에 집중”하고 결과적으로 도시와 지방의 지역적 문화 격차가 생긴다. 국제영화협회에 근무하던 시절에 국내 문화 체제의 조직 형태의 확립의 필요성을 통감한 곤도는 이러한 상업주의적 계급주의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책을 고안한다. 관객층을 직능(職能) 별로 정비하여 동원하는 드라마 리그, 문화인의 세계관의 교육을 위한 연극·영화 아카데미, 문화인을 경제적, 신분적으로 보증하는 직능 단체 등이 그것이었다. 곤도의 문화비판은 이렇게 세 가지 점에 집약된다.

그렇다고 해도, 우선 극장이나 영화관 등의 기존 문화시설이 이미 상업적 기업체 아래에 존재하는 이상, 문화의 편재(偏在) 문제는 여전히 계속된다. 그래서 문화 시설에 의거한 문화 개방이나 문화 전파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의 전층적(全層的) 향수는 국민 대중을 문화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문화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국민대중 속에 도입하여 개방하는 것이 첩경(捷徑)이다”. 그래서 곤도는 “문화와 국민대중을 묶는 중개자, 현실의 운반 차”로서 청년단 등의 기존 단체에 의한 이동 연극이나 순회 공연을 바로 미디어로 상정한 것이었다. 1941년6월에는 일본이동연극연맹(日本移動演劇連盟)이 창립되어 곤도는 발회식에 참가했다.

다만 곤도가 ‘현실의 운반차’를 상정(想定)한 단계에는 아직 매스미디어에 의한 문화 전달이란 발상은 없었다. 그래서 여기에 ‘방송’이란 개념이 추가되면 1960년의 다음과 같은 그의 주장이 된다.

방송문화란 라디오라고 하는 매스미디어를 방송체(搬送体)로 하여 대중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청중인 각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개개인의 사상 또는 감정을 따라 지식 내지의식 체험으로서 투영되어 집적되는 정신적 생성의 총체에 다름이 아니다.

문화격차를 문제시하고 문화의 민주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사상의 틀은 이 시점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문화정책론』을 출판한 1939년, 곤도는 희곡집 『대륙항로』를 출판했다. 1939년 2월 4일, 곤도 하루오는 척무(拓務)성 후원에 의해 대륙문예간담회(大陸開拓文芸懇話会)를 결성했는데 『대륙항로』는 이 모임에서 그가 대륙을 시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곤도가 히라누마 키이치로(平沼騏一郎)내각에서 척무(拓務) 대신을 맡고 있었던 핫타 요시아키(八田嘉明)가 백부이었다는 것도 있어, 발족의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회원으로는 회장으로서는 기시다 쿠니오(岸田國士), 임원으로 후쿠다 키요토(福田清人)나 아라키 타카시(荒木巍) 등이 있다. 아라키는 곤도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친한 사이였으며, 후쿠다와도 친했다. 당시 일본대학교 예술과에서 강사직에 있던 후쿠다는 ‘영화정책’을 강의하던 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만주행을 갑자기 타진되었다고 한다. 이들 세 명이 모은 후서 곤도가 “척척 사무적으로 진행하여” 대륙개척 문예 간담회가 발족된 것이었다. 회원은 곤도의 뜻에 따라 30대의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모집되었다.

주된 사업은 “문학자에게 대한 대륙시찰이나 견학의 편의” 제공, “개척 사업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참고자료 제공”, “대륙개척 문예작품의 희곡화, 영화화” 등이었다. 실제로 이 모임의 활동에서 “개척문예선서(開拓文芸選書)”나 “대륙개척 소설집” 등이 발간되어, 후쿠다가 출판한 『日輪兵舎』는 출판 이후 신국극(新国劇)에 의해 상연되었다. 더욱이 1939년 4월, 제1회 펜 부대(ペン部隊)로서 곤도, 후쿠다, 이토 세이(伊藤整) 등 6명이 만주를 시찰했다. 곤도는 이 시찰에서 만몽 개척 청소년 의용군(滿蒙開拓青少年義勇軍)을 견학하여, 『나치스의 청년운동』에서 이상화함 히틀러 청소년단과 유사한 점을 찾아냈다. 개척문예선서 제2권 희곡집 『대륙항로』는 이 만주 시찰의 성과이었다.

『대륙항로』는 3부 구성이며 제1부가 극장용, 제2부가 소인극(素人劇)용, 제3부가 라디오 드라마와 토키의 각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제2부이며, 이에 대해 ‘창작 노트’에서 특별히 언급했는데 우선 당시의 문화정책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연극을 염두에 두고 논했는데, 하나는 극장에서 상연되는 연극을 “영리 본위의 흥업 자본가”에서 개방하여 국가적인 관리와 통제하에 “일부 독점적 향수에서 전체적인 공동감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연극자체를 극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국민조직을 통해 국민이 “자연자락(自演自楽= 스스로 연기하고 즐기는 것)” 것으로써 참된 보편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문화정책론』에 있어서는 주로 첫 번째 주제가 논의되었다. 한편, 『대륙항로』는 두 번째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창작되었다. 즉, 극장이 없는 지방 거주 국민도 국민조직의 기구를 통해, 스스로 연극=문화재를 상연하고 즐길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한 것이다.

『대륙항로』 자체는 예술성 높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진부하고 평범한 국책적인 것이며, 작품은 모두 “새로운 땅”으로서의 만주에 대한 기대를 그린 것이다. 예를 들면 “광야의 종달새(広野の雲雀)”에서는 용감하고 마음 착한 만몽개척 청소년 의용군과 현지 주민과의 교류가 그려졌고, “오키요의 출발(お喜代の出発)”에서는 도쿄에

서 재회한 죽마구의 남녀가 희망을 품고 만주로 떠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스테레오타이프와 단순한 구조이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국민에게도 “스스로 연기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곤도의 이상이 나타난 것이었다. 곤도에 있어서 이상적인 ‘총 친화 체제’란 문화가 “계급적 독점의 편파성을 타파하고 국민의 전 계층에 개방돼, 궁극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각각 문화의 담당자다”라고 하는 의식에 도달한 상태이며, 『대륙항로』는 거기에 기여하기 위해 창작된 것이었다.

본 절에서는『문화정책론』을 통해서 곤도가 당시 일본에서의 문화의 문제 상황을 자본주의의 침투에 의한 문화의 타락, 계급적 문화 격차 및 지역적 문화 격차로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처방전을 미디어로서의 청년단 등에 맡기고 데다가 곤도 자신이 『대륙항로』를 집필했다는 것을 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당시 활발해 진 ‘후생(厚生)’이라고 하는 의론에 대한 곤도의 반응과 곤도가 “신 문화의 창조”를 기대한 만몽 개척 청소년 의용군에 대해 논한다.

2) 만몽 개척 청소년 의용군에 대한 시선

곤도가 집필활동을 시작한 시절에 “일본에는 후생(厚生)이 범람하는 듯한 감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 ‘후생’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또한 1942년부터는 대정익찬회(大政翼賛會) 후생부(厚生部)를 중심으로 인구 증식·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민(健民) 운동이 실시되었다. 이 ‘건민운동’은 나치스의 KdF나 이탈리아의 Dopolavoro를 모델로 해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곤도는 의념을 가지게 된다. 곤도는 1942년에『나치스의 후생문화-환희역행단(K·d·F)의 연구』, 1943년에는『독일의 건민운동』을 출판했는데 사실 이것은 그러한 의념의 표출이었다.

곤도는 후생문화의 근간을 영양, 휴양, 교양이라는 세 가지로 환원시킨다. 이 중에서 곤도가 강조하는 점은 ‘교양’이다. 당시의 건민 운동이나 후생문화에 관한 의론은 건강 증진이나 역병(疫病) 방지라고 하는 육체적인 면에서의 후생 복지 시설만이 논의되었다. 즉, 영양이나 휴양만이 초점이 된 것이다. 그러나 “고도 국방국가 수립의 기초”는 국민의 사기와 건강에 의존하기 때문에 건민 운동은 국민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의 쌍방을 ‘향상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곤도는 ‘정신적 건민운동’이야말로 중요하다고 말한다.

Kraft durch Freude의 직역은 “기쁨을 통해서 힘을”이다. 음악이나 연극 등의 레저 활동을 국민 전체에게 제공하여 노동의 질을 높이고 덧붙여 민족적 세계관을 전달하려고 한 조직이다 이 조직은 복리후생 정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교양 향상을 위한 문화운동도 실시했다. 곤도는 국민을 문화 측에 동원하는 것보다도 문화를 국민 측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것이 대규모 한 형태로 실천한 것이 이 단체이었다. 곤도는 이러한 측면으로부터 KdF를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이었다.

게다가 KdF의 연구를 통해서 곤도는 “문화”를 “스스로 연출해 연기하고 연주하고, 동지(同志)들과 함께 즐겁게 감상”되어 있는 ‘자연자락(自演自樂)’이야말로 “건전하고 명량한 오락” 활동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건전 오락의 자연자락(自演自樂)”이 청년들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도 논의를 전개해 간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는 고노에(近衛) 내각에서의 ‘동아 신 질서 성명(東亞新秩序声明)’에 의해 내걸어 진 목표의 하나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말도 성명

이후 빈번이 사용하게 되었다. 곤다(権田)는 국민생활을 기반으로 노력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곤도 역시 이것과 유사한 논의구조로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호소했다.

우선 이 ‘신문화(新文化)’를 창조하는 담당자로서 청년을, 특히나 만몽개척 청소년 의용군을 주목한다. 그들은 곤도가 이상으로 한 청년상(像)에 적합했다. 곤도는 쇼와 14년(1939년) 4월에 만주건국 10주년 경축사업의 하나로서 만주 개척민에 의한 민에 작품을 모집했더니 우수상을 받은 작품의 대부분이 만몽개척 청소년 의용군에 의한 작품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곤도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의용군이 만든 시를 채록하고 있다. “동민(東滿)의 시베리아 남기, 아침에 그쳐 모두 기뻐 작업에 힘씀(東滿のシベリア嵐今朝はやみぬ皆よろこびて作業いそしむ:사토 카즈오)”. 곤도에 있어서 이것은 바로 ‘새로운 땅’인 만주 땅에서의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창조된 문화이었다.

여기까지의 논의에서 곤도가 자신의 ‘문화정책론’을 전개하고 문화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독일 문화정책의 틀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다음의 제 가지 점에서 그것은 뚜렷하다. 즉, ‘계급주의적 문화 향수’에서부터 ‘국민적 문화 향수’로의 이행, 계급과 문화 그리고 교양을 극복한 ‘총 친화 체제’의 형성, 그리고 그것들을 완수하는 데에서 근로/노동봉사의 중요성이다.

또한 곤도의 문화정책론의 검토를 통해서 제시되는 것은 일본의 파시즘 대두의 원인에 관해서 마루야마 마사오가 지적하는 “문화의 이중성”, 다시 말해 이와나미(岩波) 문화와 고우단샤(講談社) 문화, 지식인과 대중, 도시와 지방이라고 하는 문화적 대립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지식인이 자기의 문화 권 안에 머물고 있으며 대중에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시즘의 침투를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파시스트 입장에 위치하는 곤도의 문화정책론에서는 문화격차라고 하는 문제상황이 명확히 인식되어, 그것은 그 당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파악되어 있었다. 이렇게 곤도의 사상을 문화격차의 시정, 바꿔 말하면 문화 접촉의 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점에 초점화 시키면 전후 민주주의에의 접속 가능성이 생긴다.

다음 장에서는 곤도의 문화정책론이 어떻게 전후 민주주의란 문맥에서 의미 부여되어 일억 총 백지화를 주장하게 되었는지, 또 다른 미디어 연구자와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고찰한다.

3. 방송 문화의 전망

1) 방송 문화의 가능성

전쟁 전에 곤도 하루오는 일관되게 “계급주의적 문화”의 극복을 통한 ‘국민문화’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전후 민주주의의 시대에 있어서도 그 유효성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1945년 11월, 종전 직후에 “민주주의 문화의 발족”이란 논문을 발표한다. 나치스의 문화통제를 소개해 온 사람이 왜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민주주의 문화”를 언급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곤도에게 있어서 전쟁 전의 문화정책론이 단순한 전쟁 협력이 아니라 일관되게 문화의 민주화를 뜻하는 계몽론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곤도는 “문화재를 해방하고, 민중에 의한 보편적인 향수에 맡기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 문화의 모습”이며, 해방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문화인의 사명”이라고 한다. 문화의 보편적인 향수가 민중의 정치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연결된다. 곤도의 목표는 변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성취할 것인가

가 주제가 된다.

전후에 곤도 하루오가 집필한 저서로는 『방송문화』, 『현대인의 사상과 행동-매스커뮤니케이션과 그 영향』, 『매스컴문화의 전망』, 『신문과 방송』, 『영화·라디오·신문·텔레비전』이 있다. 이것으로부터 곤도의 주된 관심 영역이 미디어론으로 옮겨 간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떤 요인이 작동했는가? 전후, 패전 시를 회상한 곤도의 발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BBC의 해외 방송이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추축국의 점령지역에 미친 영향은 점령군과 현지민(現地民)의 이간(離間) 정책에 얼마나 큰 효과를 미친 것이었을까, 전쟁 말기 2년 간을 베이징 일본 대사관에 재직해서 현실에 그 전파를 방수(傍受)한 나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말하자면 전파에 의한 심리전(心理戰)의 위력을 역력히 목격하게 된 것이다.

곤도는 전쟁 하에서 국민문화에 의한 ‘총 친화 체제’를 이상으로 두고 있었다. 그러나 “BBC 해외 방송”의 ‘이간 정책’에 의해 그 이상은 와해되었다. 다만 그는 “전파에 의한 심리전”의 강한 영향력을 자신의 이상을 파괴했다는 것만으로는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도 생각했다. “전파에 의한 심리전”을 겪은 곤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라디오 등의 방송 미디어에 기대한 것이다. 적어도 아래 곤도의 말과 전전의 곤도의 주장에게 큰 단절은 보이지 않는다.

종래는 일부 특권 계급이나 특수한 애호가들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향수된 예능(중략) 아무튼 라디오라는 매스 미디어의 등장에 의해 널리 일반대중을 위해 해방되어 보편적인 향수의 대상이 되었다.

곤도는 1955년 미디어론의 처녀작 『방송 문화』를 출판하는데, 그 해가 바로 고도 경제성장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방송은 라디오가 중심이었으며 1958년에 라디오의 수신 계약자수는 최고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텔레비전이 라디오를 대신하게 된다. 텔레비전 보급률은 급속히 늘어나고 1955년에는 불과 몇 퍼센트이었는데 1960년에는 54%로, 1964년에는 90%를 넘었다. 1969년에 죽은 곤도에 있어서 전후는 일관해서 방송 미디어의 격동기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곤도는 라디오 등 방송 미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우선 현대인은 “신문과 동등하게, 때로는 신문이상으로 라디오를 이용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혜택을 얻고” 있으며, 그것이 기능하는 범위의 광대함, 감화(感化)와 교화의 힘이 독특함을 제시하고, “현대문화의 일환”으로서 독특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방송문화”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을 “방송이라는 매스 미디어에 의해 일반 대중 사이에 널리 전달되어 보편화되는 문화”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방송문화의 특질로서 “과학의 개방성, 학문의 보급성, 예술 감상의 평등성”이 있으며, 이 세 가지 특징으로부터 해럴드 라스웰이 말하는 “동등한 교양의 원칙”이 적용된다. 아래는 곤도가 자주 인용하는 라스웰의 문장이다.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 합리적 여론은 교양의 여하에 달려있다고 자주 거론된다.

(중략)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실현 가능한 목표는 전문가, 지도자, 일반인 사이에서 보이듯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양을 부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합리적인 가치 체계의 선택은 교양에 위존 함으로 거꾸로 교양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특히 지도자, 전문가, 대중 사이의 관찰의 동일성 위에서 성립된다.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곤도는 “민주주의 사회의 목표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양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면 라디오라는 매스미디어가 보편화 시키는 ‘방송문화’의 내용은 그대로 현대인의 교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방송문화’가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곤도가 전전에 문화정책론에서 지향한 것과 거의 다른 바가 없다. 곤도가 목표로 한 국민적 규모로 보편화 되어 향수되는 문화, 즉 ‘방송문화’로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는 것으로서 구상된 것이다.

2) 일억 총 박지화(博知化)를 위하여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난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후 곤도가 살던 시기는 방송 미디어의 격동기이었다. 『방송문화』(1955)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대중사회’화가 1960년의 『현대인의 사상과 행동』에서는 큰 테마가 된다.

1955년 이후 고도 경제성장이 시작되어 소득이나 자산의 분배가 평등화 되었다. 그리고 텔레비전 등의 내구 소비재가 보급되고, 고등교육의 취학률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 즈음에 마쓰시타 케이이치(松下圭一)의 논문 『대중국가의 성립과 그 문제성』이 발표되어 ‘대중사회’가 사회적으로 큰 토픽이 되었다. 그런데, mass-society란 말을 최초로 일본에 도입한 자는 시미즈 이쿠타로(清水幾太郎)이었다. 다카하시 아키라(高橋徹)가 “전후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중심점은 역시 시미즈 씨의 문명 비평과 결부되어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곤도의 미디어 연구도 주로 시미즈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전개된다.

곤도와 시미즈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의 대중관(大衆觀)에 있다. 비판적인 시미즈는 현대에서는 공중의 성립 조건의 발전이 “공중의 합리성을 무너뜨리”며, 공중은 거대한 군집=대중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이 강요하는 방법이나 가치에 계속 대항한다는 것은 현대인의 이상이긴 하지만 그 현실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육과 선전을 등호(等号)로 맺는다. 게다가 “딱딱한 책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날카로운 송곳니가 필요한데, 라디오,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는 어찌면 송곳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유동식으로서의 마음의 식량입니다”. 즉, “비판적 능력의 무조건 행복과 사유를 제외한 획일주의”가 나타나서 대중이란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다.

낙관적인 곤도도 그러한 대중사회의 성립은 인정한다. 대중의 특징으로서 “구성원의 다양성, 익명성, 고립성, 비조직성”을 들고, 아노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했다. 개인으로서의 고독이나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신문이나 라디오라고 하는 매스미디어가 주는 송신 내용을 의식하는 것으로 의해 새로운 컨센서스를 찾아 내다가 비로서 절망과 허무로의 전략을 피하고 안정감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곤도는 확실히 그러한 대중사회의 상황은 나타나 있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국민대중의 생산적 에너지”이며, “모두 건강한 인간”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대중사회를 촉진한 텔레비전의 내용도 저속한 프로그램이 많지만

오오야 소이치(大宅壯一)가 1957년에 주장하고 일세를 풍미한 ‘일억 총 백치화(白痴化)’에는 쉽사리 연결되지 않는다. 텔레비전 내용물이 활용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일억 총 박지화(博知化)의 문화 제공체’가 된다고 주장한다. 곤도가 오오야나 시미즈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것은 “대중이 방송 미디어를 이용하여 얼마나 창조적이 되어 있는가”이었다. 또 만약 오락 미디어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해도 문화나 예능의 교양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했다.

국민 전체에 “문화의 보편적 향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곤도의 전전부터의 구상을 실행 하는 환경은 텔레비전 보급률이 90%를 넘은 1964년 시점에 마련되었다. 그리고 “문화의 보편적 향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이었다. 시간적 즉시 성이나 공간적 동시성을 가지는 방송 미디어는 문화전달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그것을 이용 하는 측의 문제다.

그러므로 전후 곤도의 일관된 문제의식은 텔레비전 등의 방송 미디어가 “대중에게 생활과 밀착한 교양원인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이었다. 전후의 미디어론에 관한 곤도의 저서는 문화전달에 있어서 더 이상의 것이 없는 문명의 이기를 대중이 문화향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찾는 시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곤도는 대중을 “바람에 살랑거리는 갈대처럼 매스컴의 의도대로 되고 거의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는 받아 들이기 힘들었다. 오오야의 ‘일억총백치화’도 시미즈의 ‘정신의 송곳니’도 수용자인 대중을 뽄뽄이 흠어진 개인으로서 원자화 해서 모두 평준화하여 평균인(平均人)으로서 “회색의 대중”으로 간주하는 매스컴의 통합력을 과신한 관념론이라고 심하게 비판했다. 곤도의 비판은 “커뮤니케이션의 2단계 흐름”이나 집단적 시청이 주가 되는 현실적 수용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가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것을 이론사(理論史)적으로 말하면 시미즈의 탄환효과론에 대한 한정 효과론에서부터의 비판이었다.

그러나 곤도가 본 현실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곤도가 사망 직전인 1968년에 집필한 『매스컴문화의 전망』에서 그는 “가장 민주적인 미디어이어야 할 텔레비전”이 “고도로 발달하고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폭력이나 난투 등”이 왜 빈발하는가 라고 하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운동의 발단이 된 일본대학교에 근무하던 곤도에 있어서 폭력이나 난투는 몸 가까이에서 목도했을 것이다. 그의 답은 “텔레비전을 비롯해 모든 매스미디어를 일반 대중이 충분히 이해하고 향수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습관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머물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쪽에서는 “현대 생활은 (중략)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을 배경으로 해야만이 혹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야만이, 어쨌든 그 존재를 무시해서는 생활 자체를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의 매스미디어가 가지는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스위치를 키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자각하여 이용하도록. 이러한 의미에서 텔레비전은 ‘일억총박지화’의 계몽 미디어가 된다.

5. 마치며

본 논문에서는 전쟁 전에는 문화정책론자, 전후는 미디어 연구자로서 ‘일억 총 박지화’를 주장한 곤도 하루오에 초점을 맞춰서, 독일 문화정책 연구가 어떻게 전후의 미디어 연구에 접속되었는가를 논했다. 종래 미디어 연구는 미국에서의 수입 학문으로 인지되지만, 독일의 문화정책론을 기원으로 하는 계보도 있었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밝힐 수 있었다. 또 여대까지 단편적으로만 다루어져 온 곤도 하루오를 통시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독일 문화정책 연구나 전쟁 중의 문화정책의 의도를 들어내고 각각이 문화격차의 시정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의해 관통된 것을 지적할 수 있었다. 곤도에는 그러한 의식이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전후의 ‘일억 총 박지화’를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년의 곤도가 토로하고 있는 것처럼 ‘일억 총 박지화’가 어디까지 성취되었는가 하면 의문이 남는다. 오히려 ‘일억 총 박지화’든 ‘국민문화’든 원래 꿈에 불과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격차 사회가 큰 이슈가 된 현재, ‘일억 총 박지화’는 버리기에는 아까운 개념이 아닌가. 사토 타쿠미 역시 교육활동이나 정보조작이 문제시되는 현재야 말로 ‘일억 총 박지화’를 가능하게 하는 “텔레비전적 교양”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일억 총 박지화’의 기원을 생각할 때에 부상되는 독일의 문화정책이나 국민 종신 총동원 운동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는 없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혹은 그러한 것과 결합이 되지 않은 ‘일억 총 박지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동시에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일억 총 박지화’를 계속 추궁한 곤도 하루오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상과 행동을 해명하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문제점으로서, 곤도 하루오의 역사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의 문화정책론이나 독일 연구, 미디어 연구가 동시대의 언론 상황에 있어서 얼마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전전에『문화정책 논고』를 펴낸 미야하라 세이이치(宮原誠一)는 전후 NHK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학교 방송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곤도의 경력에 통하는 것이 있다. 미야하라와 곤도의 차이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후의 과제로 하고 싶다.